

치위생과와 비보건학과 학생의 인지-지각 요인에 따른 구강건강증진행위

정은주 · 윤혜정¹

청암대학 치위생과, ¹신흥대학 치위생과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according to awareness-perception factors of dental hygiene and nonhealth-related students

Eun-Ju Jung · Hye-Jeong Youn¹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heongam University,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hin-heung college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wareness-perception factors and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dental hygiene and nonhealth-related students in an effort to find out factors affecting their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Methods :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students in the three-year-course dental hygiene and students in the two-year-course nonhealth-related department in G college located in the city of Gwangju. After a survey was conduct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and compared.

Results : 1. The dental hygiene studen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head of the nonhealth-related students in perceived oral health knowledge($p < 0.001$),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oral health($p < 0.001$), perceived oral health status($p < 0.001$) and oral health interest($p < 0.001$). 2. Concerning the characteristics of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the dental hygiene studen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better at toothbrushing($p < 0.001$) and the use of dental floss($p < 0.001$) than the nonhealth-related students. 3. Regarding factors affecting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interest were identified as the factors that impacted on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Out of the two, oral health interest exercised a greater influence on that.

Conclusions : It seems that oral health education could motivate students to be concerned about their oral health, to acquire knowledge on that and eventually to change their oral health behavior and attitude. As for college students, oral health education provides a final chance for them to check their oral health knowledge, attitude and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before they start to work as full-fledged adults, and institutional measures should be taken to offer more intensive official oral health education. (J Korean Soc Dent Hygiene 2010 ; 10(5) : 777-788)

Key words : awareness-perception factors, dental hygiene students, nonhealth-related students,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색인 : 구강건강증진행위, 비보건학과 학생, 인지-지각요인, 치위생과 학생

1. 서론

건강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행복 가운데 하나이며,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생존의 조건으로서 헌법에서도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사회가 발

달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¹⁾.

전신적인 건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구강건강의 중요성 역시 강조되어야 한다. 구강건강은 질병에 이환되지 않고 정신적으로 건전하며,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구강조직 및 장기의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구강이 질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타인과의 생활에서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구강조직 및 장기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²⁾. 그러나 2007년 건강보험 심사 통계지표에 의하면 외래요양급여비용 10대 질환 중 치수 및 치근막 주위조직의 질환은 3위, 치아우식증은 5위, 치은 및 치주질환은 6위를 차지하였고, 또한 보건복지부(2006)에 따르면 우식경험영구치지수가 미국 1.8개(2002), 덴마크 0.8개(2005), 독일 0.7개(2005)인 것에 비해 한국은 2.2개(2006)이며, 영구치우식 경험자율은 61%로 아직까지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개선이 부족한 실정이다³⁾.

건강의 행위가 실천되기 위해서는 건강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해 지각 및 이해, 지식의 수용, 분석단계를 거쳐 행동으로 나타나므로⁴⁾, 이러한 구강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중심의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건강행위의 실천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방식으로서 건강행위를 확고히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질병에 대한 이환율이 낮고, 기본적인 건강상태가 좋으며, 자아의식이 어느 정도 확립된 청년기가 바람직하다⁵⁾. 그러나 우리나라 청년인구는 학령기에 발생된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이 축적되어 있고, 치아우식증으로 발거한 치아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⁶⁾, 대부분의 청년기인 대학생들은 자신의 구강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⁷⁾.

본격적인 건강행위에 대한 성장과정에 들어선 청년기의 대학생들은 성인 중기 및 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습관이 확고히 형성되지 않아 건강행위의 수정가능성이 크고, 이 시기에 정착된 건강습관은 성인 중기 및 후기의 건강행위와 이에 따른 건강한 삶의 기반이며, 미래의 부모로서 이들의 교육정도나 건강에 대한 태도, 실천 등이 자녀의 건강실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8,9)} 대학생의 구강건강증진행위 확립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광주지역에 소재한 G 대학의 치위생과와 비보건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인지-지각

하고 있는 구강건강지식, 구강건강 중요성, 구강건강 상태, 구강건강 관심과 구강건강증진행위의 관계를 알아보고, 구강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증진행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들의 올바른 구강건강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어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바람직한 구강건강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광주지역에 소재한 대학 중 임의로 G 대학을 선정하여 3년제 치위생과 학생과 주 전공이 보건학과와 관련이 없는 2년제 1개의 비보건학과 학생을 전수조사 하였다.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은 구강건강에 대한 인지-지각요인과 구강건강증진행위에 관한 기존 연구의 설문지^{10,11)}를 참고로 하여 설문을 수정 및 보완한 다음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설문기간은 2009년 9월 9일부터 9월 19일까지이며,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한 후 자기 기입식으로 작성하게 하여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총 572부를 배부하여 491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에서 기제가 누락되거나 모순이 발견된 52부를 제외한 439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2.2. 연구도구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 4문항,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 15문항, 구강건강의 중요성 1문항, 구강건강이 중요한 이유 1문항, 인지된 구강건강의 상태 1문항, 구강건강의 관심 1문항, 구강건강증진행위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강건강지식에 관한 설문은 김¹¹⁾이 사용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정답과 오답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하였다. 지식에 관련된 문항은 칫솔질,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불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구강건강의 중요성은 건강 중에서 구강건강을 중요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Unit: N, %

Division		Dental hygiene students	Nonhealth-related students
Gender	Male	0 (0.0)	44 (22.2)
	Female	241(100.0)	154 (77.8)
Academic year	First year	76 (31.5)	94 (47.5)
	Second year	86 (35.7)	104 (52.5)
	Third year	79 (32.8)	0 (0.0)
Oral health education	Yes	233 (96.7)	11 (5.6)
	No	8 (3.3)	187 (94.4)
Total		241(100.0)	198(100.0)

하게 생각하는 정도에 관한 문항으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심미성, 음식물 저작성, 발음용이, 기타 항목으로 나누어 다중응답으로 처리하였다.

구강건강행위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고, 정신작용과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약안면 구강조직기관의 상태를 유지 증진시키는 행위이다¹⁰⁾. 구강건강증진행위에 관한 문항은 주기적 검진 및 스케일링 2문항, 칫솔질 2문항, 불소 사용 2문항, 치실 사용 1문항, 식습관 2문항으로 9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증진행위의 수행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honbach's α 계수는 0.717이었다.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s for Social Science 17.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으며, 계열에 따른 인지-지각요인과 구강건강증진행위의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지-지각 요인과 구강건강증진행위의 차이는 치위생과와 비보건학과 학생으로 나누어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정은 Duncan multiple range test를 시행하였다. 인지-지각요인과 구강건강증진행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이용하였으며, 구강건강증진행위에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치위생과와 비보건학과 학생으로 나누어 구강건강증진행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성적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치위생과에서 성별의 분포는 전체 241명에서 여자가 100%로 나타났으며, 학년 구분에서 2학년이 35.7%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구강보건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는 경우가 96.7%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았다. 비보건학과에서 성별의 분포는 남자 22.2%, 여자 77.8%로 여자의 비율이 다소 많았으며, 학년 구분에 있어서는 2학년이 52.5%로 1학년 47.5%보다 많았다. 구강보건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는 경우가 94.4%로 교육의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많았다.

3.2. 인지-지각요인의 특성

조사 대상자가 인지-지각하고 있는 구강건강지식, 구강건강 중요성, 인지된 구강건강 상태, 구강건강 관심의 분포는 <Table 2>와 같다

구강건강지식은 총 15문항으로 만점 15점에서 치위생과 학생이 13.3±1.2점이며, 비보건학과 학생이 10.7±2.3점으로 치위생과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1$). 구강건강 중요성은 치위생과 학생이 3.9±0.3, 비보건학과 학생이 3.7±0.6으로 치위생과 학생이 구강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인지된 구강건강의 상태에 대해 치위생과 학생이 3.1±0.9, 비보건학과 학생이 2.7±0.9로 치위생과에서 지각된 구강건강 상태가 양호함을 나타내며, 두 그룹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awareness-perception factors

Division	Dental hygiene students	Nonhealth-related students	p-value
	Mean ±SD	Mean ±SD	
Oral health knowledge	13.3±1.2	10.7±2.3	0.000***
Oral health importance	3.9±0.3	3.7±0.6	0.000***
Oral health status	3.1±0.9	2.7±0.9	0.000***
Oral health interest	3.4±0.6	3.1±0.6	0.000***

*** p<0.001

Table 3. The characteristics of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Unit: Mean±SD

Division		Dental hygiene students	Nonhealth-related students	p-value
Periodic examination	Periodic dental examination and therapy	2.7±1.0	2.6±1.0	0.340
	Periodic scaling			
Toothbrushing	Correct toothbrushing	3.9±0.6	3.6±0.7	0.000***
	Thorough toothbrushing after meal			
Use of fluoride	Dentifrice use containing fluoride	3.0±0.8	3.0±0.9	0.779
	Mouthrinse use containing fluoride			
Dental floss	Use of dental floss	3.0±1.3	2.6±1.2	0.000***
Eating habits	Sufficient nutrition intake	3.2±0.7	3.2±0.7	0.569
	Food restraint containing sugar			

*** p<0.001

있었다(p<0.001). 구강건강의 관심은 치위생과 학생이 3.4±0.6, 비보건학과 학생이 3.1±0.6으로 치위생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1).

3.3. 구강건강증진행위의 특성

구강건강증진행위의 세부 영역별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주기적인 치과검진 및 치료와 주기적인 스케일링을 포함하는 주기적 검진 영역은 치위생과 학생이 2.7±1.0, 비보건학과 학생이 2.6±1.0으로 치위생과 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올바른 칫솔질과 식후 철저한 칫솔질을 포함하는 칫솔질 영역은 치위생과 학생이 3.9±0.6, 비보건학과 학생이 3.6±0.7로 다른 구강건강증진행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불소 함유 세치제와 용액 사용은

치위생과와 비보건학과 학생에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치과용 치실 사용 영역은 치위생과 학생이 3.0±1.3, 비보건학과 학생이 2.6±1.2로 치위생과 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0.001), 충분한 영양 섭취와 설탕 섭취 제한을 포함하는 식습관 영역은 치위생과와 비보건학과 학생 모두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지-지각요인의 차이 분석

치위생과와 비보건학과 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지식, 구강건강 중요성, 구강건강 상태, 구강건강 관심의 차이 분석은 <Table 4, 5>와 같다.

치위생과 학생은 성별에 있어서 남학생이 없었으므로 여학생과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학년에 따른

Table 4. Analysis betwee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awareness-perception factors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Unit: Mean±SD

Division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importance	Oral health status	Oral health interest	
Academic year	First year	12.9±1.3 ^a	3.9±0.3	3.0±0.9	3.3±0.6 ^a
	Second year	13.5±1.0 ^b	3.9±0.3	3.1±0.9	3.5±0.5 ^b
	Third year	13.5±1.1 ^b	3.9±0.3	3.0±0.8	3.5±0.6 ^b
	p-value	0.001 ^{**}	0.337	0.818	0.016 [*]
Oral health education	Yes	13.3±1.2	3.9±0.3	3.0±0.9	3.4±0.6
	No	13.0±1.3	4.0±0.0	3.5±0.8	3.3±0.7
	p-value	0.055	0.000 ^{***}	0.137	0.414

* p<0.05, ** p<0.01, *** p<0.001

^{a,b}: The same letter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Duncan test at $\alpha=0.05$

Table 5. Analysis betwee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awareness-perception factors in the nonhealth-related students

Unit: Mean±SD

Division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importance	Oral health status	Oral health interest	
Gender	Male	9.4±2.3	3.6±0.5	2.5±0.8	3.1±0.7
	Female	11.0±2.2	3.7±0.6	2.8±0.9	3.1±0.6
	p-value	0.000 ^{***}	0.404	0.038 [*]	0.649
Academic year	First year	10.0±2.3	3.6±0.7	2.7±0.9	3.0±0.6
	Second year	11.3±2.2	3.7±0.5	2.7±0.9	3.2±0.6
	p-value	0.000 ^{***}	0.110	0.943	0.012 [*]
Oral health education	Yes	8.2±1.7	3.3±0.5	2.9±1.2	2.8±0.9
	No	10.8±2.3	3.7±0.6	2.7±0.9	3.1±0.6
	p-value	0.000 ^{***}	0.026 [*]	0.453	0.116

* p<0.05, *** p<0.001

차이를 살펴보면 구강건강지식(p<0.01), 구강건강 관심(p<0.05)에서 학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구강보건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구강건강 중요성에 있어서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이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1).

비보건학과 학생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구강건강지식(p<0.001)과 구강건강 상태(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구강건강지식(p<0.001)과 구강건강 관심(p<0.05)에서 1학년 보다 2학년에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강보건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구

강건강지식(p<0.001)과 구강건강 중요성(p<0.05)에 있어서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이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3.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증진행위와 세부 영역별 차이 분석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증진행위와 세부 영역별 차이 분석은 <Table 6, 7>와 같다.

치위생과 학생에서 성별은 남학생이 없으므로 차이를 분별할 수 없었으며, 학년에 따른 차이는 전체 구강건강증진행위(p<0.001), 주기적 검진(p<0.001), 칫솔질(p<0.05), 불소사용(p<0.001), 치실사용 영역(p<0.001)

Table 6. Analysis betwee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Unit: Mean±SD

Division	Periodic examination	Tooth -brushing	Use of fluoride	Dental floss	Eating habits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s	
Academic year	First year	2.4±1.0 ^a	3.8±0.7 ^a	2.6±0.9 ^a	2.4±1.4 ^a	3.1±0.8	2.9±0.6 ^a
	Second year	2.7±0.9 ^a	3.9±0.5 ^{ab}	3.1±0.8 ^b	2.9±1.2 ^b	3.2±0.7	3.2±0.5 ^b
	Third year	3.1±0.9 ^b	4.0±0.6 ^b	3.2±0.6 ^b	3.8±0.9 ^c	3.1±0.7	3.4±0.4 ^c
	p-value	0.000 ^{***}	0.010 [*]	0.000 ^{***}	0.000 ^{***}	0.347	0.000 ^{***}
Oral health education	Yes	2.7±1.0	3.9±0.6	3.0±0.8	3.1±1.3	3.2±0.7	3.2±0.5
	No	2.8±1.2	3.8±0.4	2.3±1.2	2.5±1.4	2.8±0.8	2.9±0.6
	p-value	0.759	0.648	0.136	0.241	0.165	0.113

* p<0.05, *** p<0.001

^{a,b,c}: The same letter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Duncan test at $\alpha=0.05$

Table 7. Analysis betwee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the nonhealth-related students

Unit: Mean±SD

Division	Periodic examination	Tooth -brushing	Use of fluoride	Dental floss	Eating habits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s	
Gender	Male	2.6±1.0	3.4±0.7	3.0±1.0	2.6±1.1	3.3±0.6	3.0±0.6
	Female	2.6±1.0	3.6±0.6	3.0±0.9	2.6±1.2	3.2±0.7	3.0±0.6
	p-value	0.645	0.164	0.951	0.962	0.557	0.983
Academic year	First year	2.6±1.0	3.6±0.6	3.0±1.0	2.8±1.2	3.3±0.7	3.1±0.6
	Second year	2.6±1.1	3.5±0.7	2.9±0.9	2.5±1.2	3.1±0.7	3.0±0.6
	p-value	0.962	0.300	0.275	0.058	0.122	0.146
Oral health education	Yes	3.0±0.6	3.2±0.6	2.9±0.5	2.6±1.0	3.2±0.5	3.0±0.4
	No	2.6±1.0	3.6±0.7	3.0±0.9	2.6±1.2	3.2±0.7	3.0±0.6
	p-value	0.096	0.081	0.845	0.932	0.875	0.992

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구강보건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에서는 주기적 검진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05$).

비보건학과 학생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여학생이 대체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학년에 있어서도 학년이 낮을수록 높았으나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구강보건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예'에는 주기적 검진이 높게 나타났으며, '아니오'에서는 칫솔질, 불소사용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6. 연구변수간의 상관관계

연구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구강건강지식은 구강건강 중요성($p<0.001$)은 뚜렷한 양적 선형관계를 가지며, 구강건강 상태($p<0.01$), 구강건강 관심($p<0.001$), 칫솔질 영역($p<0.001$)은 약한 양적 선형관계를 나타내었다. 구강건강 중요성은 구강건강 관심($p<0.001$), 칫솔질 영역($p<0.001$)에서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구강건강 상태는 칫솔질 영역과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01$). 구강건강 관심은 주기적 검진($p<0.001$), 칫솔질($p<0.001$), 치실 사용 영역($p<0.001$)과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Table 8. Correlation of the variables

Division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importance	Oral health status	Oral health interest	Periodic examination	Tooth brushing	Use of fluoride	Dental floss	Eating habits
Oral health knowledge	1								
Oral health importance	.383***	1							
Oral health status	.144**	.016	1						
Oral health interest	.224***	.194***	.069	1					
Periodic examination	-.014	-.021	.089	.215***	1				
Toothbrushing	.248***	.192***	.135**	.251***	.169***	1			
Use of fluoride	-.011	-.066	.019	.088	.394***	.338***	1		
Dental floss	.069	.056	.050	.213***	.465***	.172***	.339***	1	
Eating habits	-.047	.073	.056	.082	.162**	.254***	.253***	.199***	1

p<0.01, *p<0.001

Table 9. Factors affecting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Division	B	SE B	β	T	Sig.	
Constant	2.439	.433		5.628	.000	
Oral health knowledge	.075	.028	.169	2.656	.008**	R ² = .076
Oral health importance	-.067	.117	-.038	-.570	.569	adj. R ² = .060
Oral health status	.018	.038	.030	.476	.635	F = 4.820
Oral health interest	-.152	.055	-.181	-2.768	.006**	Sig. = .001

**p<0.01

Table 10. Factors affecting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the nonhealth-related students

Division	B	SE B	β	T	Sig.	
Constant	3.793	.305		12.429	.000	
Oral health knowledge	-.043	.019	-.166	-2.289	.023*	R ² = .109
Oral health importance	-.015	.074	-.014	-.199	.842	adj. R ² = .091
Oral health status	.090	.045	.135	1.975	.050	F = 5.916
Oral health interest	-.277	.067	-.284	-4.150	.000***	Sig. = .000

*p<0.05, ***p<0.001

냈으며, 주기적 검진은 칫솔질(p<0.001), 식습관 영역(p<0.01)에서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불소 사용(p<0.001), 치실 사용(p<0.001)에서는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칫솔질은 불소 사용(p<0.001) 과

뚜렷한 양의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치실 사용(p<0.001), 식습관 영역(p<0.001)과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불소 사용 영역과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수는 치실 사용(p<0.001)이었으며, 식습관 영역

($p < 0.001$)은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었다. 또 치실 사용 영역과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수는 칫솔관 영역($p < 0.001$)으로 나타났다.

3.7. 구강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치위생과와 비보건학과 학생의 구강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구강건강증진행위를 종속변수로 하여 인지-지각요인인 구강건강지식, 구강건강 중요성, 구강건강 상태, 구강건강 관심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9, 10>과 같다.

치위생과 학생의 구강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구강건강 지식($\beta = .169$)과 구강건강 관심($\beta = -.181$)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p < 0.01$). 그 중 구강건강 관심이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R^2)은 7.6%를 보였다.

치위생과 학생의 구강건강증진행위와 인지-지각요인 간의 다중회귀 분석 결과에 의한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치위생과 학생의 구강건강증진행위 = $2.439 + 0.075 \times$
구강건강지식 - $0.067 \times$ 구강건강 중요성 + $0.018 \times$ 구강건강
상태 - $0.152 \times$ 구강건강 관심

비보건학과 학생의 구강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구강건강 지식($\beta = -.166$)과 구강건강 관심($\beta = -.284$)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p < 0.001$). 그 중 구강건강 관심이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R^2)은 10.9%를 보였다.

비보건학과 학생의 구강건강증진행위와 인지-지각요인 간의 다중회귀 분석 결과에 의한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비보건학과 학생의 구강건강증진행위 = $3.793 - 0.043$
 \times 구강건강지식 - $0.015 \times$ 구강건강 중요성 + $0.090 \times$ 구강
건강 상태 - $0.277 \times$ 구강건강 관심

결과적으로 치위생과와 비보건학과 학생은 구강건강 지식이 높을수록,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클수록 구강건강증진행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4. 총괄 및 고안

건강과 마찬가지로 구강건강도 대학시절에 구강건강에 이롭지 못한 행위가 일상생활습관으로 고착화되어 성인기의 구강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수정가능성이 있는 대학시절에 바람직한 구강건강관리행위의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치위생과와 비보건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인지-지각하고 있는 구강건강지식, 구강건강 중요성, 구강건강 상태, 구강건강 관심과 구강건강증진행위의 관계를 알아보고, 구강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대학생들의 올바른 구강건강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어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바람직한 구강건강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하여, 치위생과 학생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96.7%, 비보건학과 학생은 5.6%를 보여 비보건학과 학생은 과반수 이상이 구강보건교육에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¹²⁾은 연령과 성별 등 일반적인 특성에 상관없이 건강관리에 있어서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비보건학과 학생들에게 대학생활 동안 보다 다양한 구강보건교육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조사 대상자들이 인지-지각하고 있는 구강건강지식은 치위생과 학생이 비보건학과 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001$). 이는 구강건강에 대한 정보의 증가와 전공교육의 효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김¹³⁾은 바람직한 구강건강행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나 신념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하여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정¹⁴⁾은 구강건강관련 전공학과 대학생이 비 구강건강관련 전공학과 대학생보다 자신의 구강보건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구강건강의 중요성에서 치위생과 학생 전체는 구강건강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비보건학과 학생은 4명이 구강건강이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구강건강이 중요한 이유에 심미성, 음식물 저작성, 발음용이,

기타 문항에서 치위생과 학생은 음식물 저작성이 87.1%, 심미성이 22.0%이었으며, 비보건학과 학생은 음식물 저작성이 72.7%, 심미성이 13.1%를 나타내어 두 그룹 모두 음식물 저작성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차적으로 구강을 생각하면 치아를 생각하게 되는 사람의 심리에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되며 그로 인해 음식물 저작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을 것으로 보이며 또 조사대상 계층이 대학생이고 이성애에 대한 호기심이 많을 때이다 보니 심미성이 두 번째를 차지한 것으로 여겨진다.

인지된 구강건강 상태는 두 그룹 모두에서 다른 인지-지각요인에 비해 낮게 나타나 대학생들은 자신의 구강건강 상태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⁶⁾의 연구에서 자신의 구강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24%, 그렇지 않은 경우가 76%로 나타났으며, 송⁷⁾의 연구에서도 20.8%만이 구강이 건강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이 자신의 구강건강 상태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구강검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구강건강증진행위의 세부 영역별 특성에서 올바른 칫솔질과 식후 철저한 칫솔질을 포함하는 칫솔질 영역과 치과용 치실 사용 영역은 치위생과 학생이 비보건학과 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p < 0.001$), 주기적 검진과 불소 사용 및 식습관 영역은 두 그룹 간에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비보건학과 학생에게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칫솔질과 치실 사용 방법에 관한 정보제공과 이러한 행위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주기적인 치과검진 및 치료와 주기적인 스케일링을 포함하는 주기적 검진 영역은 다른 구강건강증진행위에 비해 낮게 나타나 대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치과방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¹⁶⁾의 연구에서도 연구대상자들이 정기적인 치과방문의 효과를 인정하면서 정작 실천은 가장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양⁵⁾의 연구에서 정기적인 스케일링에 낮은 분포를 보여 향후 구강보건교육시 예방적 행위인 치석제거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지-지각요인의 차이 분석에서 치위생과와 비보건학과 학생 모두 학년에 따라서는 구강건강지식과 구강건강 관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구강보건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치위생과 학생은 구강건강 중요성에서, 비보건학과 학생은 구강건강지식과 구강건강 중요성에 있어서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이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손¹⁷⁾은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행위가 모두 양호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다른 견해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집단에서의 교육이 학생들에게 충분한 지식전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지를 효과적으로 교육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학생계층의 교육 프로그램 제작시 좀더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매체 개발과 그들 집단이 필요로 하는 교육이 실시 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증진행위와 세부 영역별 차이 분석 치위생과 학생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는 전체 구강건강증진행위($p < 0.001$), 주기적 검진($p < 0.001$), 칫솔질($p < 0.05$), 불소사용($p < 0.001$), 치실사용 영역($p < 0.001$)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비보건학과 학생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영역이 없었다. 치위생과 학생에서는 구강보건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에서는 주기적 검진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p > 0.05$), 비보건학과 학생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Howat 등¹⁸⁾과 성 등¹⁹⁾은 전공교육이 심화되고 환자를 접할 기회를 갖는 임상실습을 통하여 치위생과 학생의 구강보건에 대한 태도 및 행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실제 구강상태도 개선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3학년으로 갈수록 구강건강에 대한 인지-지각 요인과 구강건강증진행위가 높아지는 본 연구의 치위생과 학생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비보건학과와 경우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구강보건교육시 학생들에게 동기유발을 충분히 일으키지 못하였고 그 결과로 학생들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결과로 보였다.

연구변수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구강건강지식이 높을수록 구강건강 중요성, 구강건강 상태, 구강건강

관심이 증가하며, 구강건강에 대한 인지-지각요인이 높을수록 구강건강증진행위의 세부영역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상관관계 정도는 대체로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배²⁰⁾는 전문 대학생들의 구강보건지식이 높을수록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정²¹⁾은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이 높아질수록 구강건강 관련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와 최²²⁾는 구강보건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치아우식증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구강보건지식은 구강보건실천, 식생활 형태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치위생과와 비보건학과 학생의 구강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두 계열 모두에서 구강건강 지식과 구강건강 관심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구강건강 관심이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²³⁾는 외적 통제위, 구강건강 관심도가 높을수록 구강건강증진행위가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이¹⁰⁾는 구강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구강보건교육, 구강건강 관심도, 인지된 구강건강 상태, 구강건강의 중요성이라고 밝혔다. 구강보건교육을 통한 흥미유발은 구강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하여 구강보건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구강보건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학생들을 위한 구강보건교육은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자신의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구강건강증진행위를 마지막으로 점검할 기회로써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치위생과 학생보다 비보건학과 학생이 구강건강에 대한 인지-지각 요인 및 구강건강증진행위가 낮음을 감안하여 비보건학과 학생들의 구강건강증진행위 수행을 위하여 치위생과나 치과대학이 있는 학교에서는 이들 학과의 도움을 받아 구강보건에 대한 경험 및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들 학과가 없는 각 대학에서는 학교 간 교류를 통한 각 지역의 치위생과나 치과대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구강보건교육을 받거나 구강위생용품 전시를 통한 사용요령을 교육받도록 하고 더 나아가 구강보건관련 교양과목의 개설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교육이 학생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사용된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여러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구성한 것으로 표준화

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또한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임의추출과 표본수의 제한으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광범위하고 많은 지역에서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인지-지각요인과 구강건강증진행위의 관계를 알아보고, 구강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증진행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광주지역에 소재한 G 대학의 3년제 치위생과와 2년제 비보건학과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조사 대상자들이 인지-지각하고 있는 구강건강지식 ($p<0.001$), 구강건강 중요성($p<0.001$), 인지된 구강건강 상태($p<0.001$), 구강건강 관심($p<0.001$)은 치위생과 학생이 비보건학과 학생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2. 구강건강증진행위의 세부 영역별 특성에서 칫솔질 ($p<0.001$)과 치실 사용 영역($p<0.001$)은 치위생과 학생이 비보건학과 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주기적 검진과 불소 사용 및 식습관 영역은 두 그룹 간에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지-지각요인의 차이 분석에서 치위생과와 비보건학과 학생 모두 학년에 따라서는 구강건강지식과 구강건강 관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구강보건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치위생과 학생은 구강건강 중요성에서, 비보건학과 학생은 구강건강지식과 구강건강 중요성에 있어서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이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증진행위와 세부 영역별 차이 분석 치위생과 학생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는 전체 구강건강증진행위($p<0.001$), 주기적 검진

($p < 0.001$), 칫솔질($p < 0.05$), 불소사용($p < 0.001$), 치실사용 영역($p < 0.001$)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비보건학과 학생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영역이 없었다.

5. 연구변수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구강건강지식이 높을수록 구강건강 중요성, 구강건강 상태, 구강건강 관심이 증가하며, 구강건강에 대한 인지-지각요인이 높을수록 구강건강증진행위의 세부영역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상관관계 정도는 대체로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6. 치위생과와 비보건학과 학생의 구강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두 계열 모두에서 구강건강지식과 구강건강 관심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구강건강 관심이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통한 흥미유발은 구강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하여 구강보건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서 구강보건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학생들을 위한 구강보건교육은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자신의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구강건강증진행위를 마지막으로 점검할 기회로써 매우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김준호.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인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2. 김종배, 문혁수, 백대일, 고소영. 근로자의 구강보건 의식과 구강보건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9;23(2):95-111.
3. 김규리. 일부 대학생의 구강보건교육 수강에 따른 구강보건행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4. Suchman EA. Health attitudes and behavior. Arch Environ Health 1970;20(1):105-110.
5. 유은광, 김명희, 김태경. 중년여성의 건강증진행위와 갱년기 증상, 우울관계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999; 29(2):225-237.
6. 김종배, 장기완, 황윤숙, 김진범, 백대일. 공중구강보건교육학. 3판. 서울:고문사;2000:273-276.
7. 송설경. 일부 대학생의 구강보건인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성별 및 전공계열 비교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8. Yarcheski A, Mahon NE. A causal model of positive health practices: The relationship between approach and relocation. Nursing Research 1989; 38(2):88-93.
9. Fardy PS, White RE, Clark LT, et al. Health promotion in minority adolescents: ahealth people 2000 pilot study. J Cardiopulm Rehabil 1995;15(1):65-72.
10. 이호연. 건강증진모형을 이용한 구강건강행위 관련 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 및 질병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1.
11. 김정석. 中等學生의 口腔保健에 대한 意識行態 調査研究. 경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12. Park MY: A study on the degree of the actual condition of management and knowledge of oral health by college students who major in public health or not. J of Korean Dentistry 2005;58(1):91-99.
13. 김영임. 일부 보건계열 대학생의 구강보건행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8;8(1): 23-33.
14. 정수하. 보건대학 학생의 구강보건행태.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15. 양귀혜. 서울일부지역 성인들의 구강건강과 그 영향 요인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16. 백대일. 한국인의 치아우식예방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관리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3;17(1):1-12.
17. 손미향.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행위 및 구강위생상태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18. Howat A, Trabelski I, Bradnock G. Oral hygiene levels and behavior in pre-clinical and final-year dental students. J Clinperiodontol 1979;6(3):177-185.
19. 성진효, 김동섭, 송요환, 장기완. 치학전문교육이 광주보건대학 보건계열 여학생의 구강 건강과 구강환경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2;26(2):137-146.
20. 배지영. 전문대학생들의 구강보건관리에 대한 인식 및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보건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2.
21. 정영숙. 일 지역 성인의 구강건강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0;17(1):95-113.
22. 이재광, 최유진. 구강보건지식도 및 관리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학생-.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83;7(1):124-134.
23. 이선미. 일부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인식과 그 영향 요인 분석.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7;7(1):41-51.